

2018/06/11

코나아이 (052400)

지주/Mid-Small Cap 이상현

(2122-9198) value3@hi-ib.com

결제 플랫폼 및 코나카드 등 핀테크 성장 부각

■ B2B 결제 플랫폼 및 B2C 코나카드 확대로 매출 성장할 듯

코나카드를 통하여 가맹점 플랫폼 제공(B2B) 및 선불형카드 발행(B2C) 등의 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우선 가맹점 플랫폼 제공 사업(B2B) 의 경우 대형 유통 가맹점 등에 선불형카드 결제 플랫폼(카드발급, 충전, 결제승인, 정산 등 모든 프로세싱 대행)을 제공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다. 기존의 3자, 4자 결제구조를 가맹점(카드발행사)과 동사 2자 결제구조로 전환함으로써 절감되는 가맹점 결제 수수료를 마케팅과 프로모션에 활용하여 고객 유인효과를 통한 신규고객 창출 및 결제금액 확대로 가맹점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잇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현재 SPC그룹 등 대형 유통 가맹점과 제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에도 다른 대형 유통 가맹점으로 확대가 예상되면서 성장성 등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선불형카드 발행 사업(B2C)의 경우 IC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전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형카드인 코나카드를 개인고객 대상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스타벅스 30%, 커피빈 20%, H&M 10% 등 프리미엄 가맹점 할인 및 그 외 모든 가맹점에서 0.2% 즉시 할인 등 사용자 혜택 제공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에쿠온 캐피탈 등 여러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코나카드 사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 지문인식카드 등 성장성 부각 될 듯

카드 범용성 확장을 비롯하여, 보안강화 및 기업의 활용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마스터카드는 2021년까지 기존 신용카드 33억장을 지문신용카드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비자카드 등도 지문카드 시범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비자는 마운틴 아메리카 크레딧 유니온(MACU)과 지문카드의 상용화에 앞서 시범서비스를 진행 중인데, 동사가 MACU에 자체 개발한 최첨단 지문카드를 공급한다. 사용자 경험 등을 통해 기술적인 보완을 거쳐 안정되고 표준화된 지문카드 규격을 개발하게 되면 지문카드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향후 상용화 시 동사는 비자 지문카드 시범서비스 참여 등 선점효과로 인하여 성장성 등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조폐공사가 발주한 315억원 규모의 제7차 전자여권 이커버 조달사업의 선정 결과가 이르면 오는 6월 중에 발표되는데, 동사와 LG CNS가 경쟁 중으로 만약 동사가 선정 된다면 성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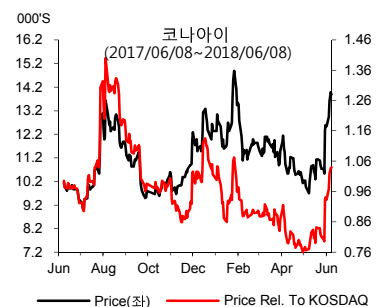
NR

액면가	500원
종가(2018/06/08)	13,900원

Stock Indicator

자본금	7.7십억원
발행주식수	1,556만주
시가총액	216십억원
외국인지분율	4.9%
배당금(2017)	-
EPS(2017)	-원
BPS(2017)	10,322원
ROE(2017)	-%
52주 주가	9,020~14,900원
60일평균거래량	161,443주
60일평균거래대금	1.9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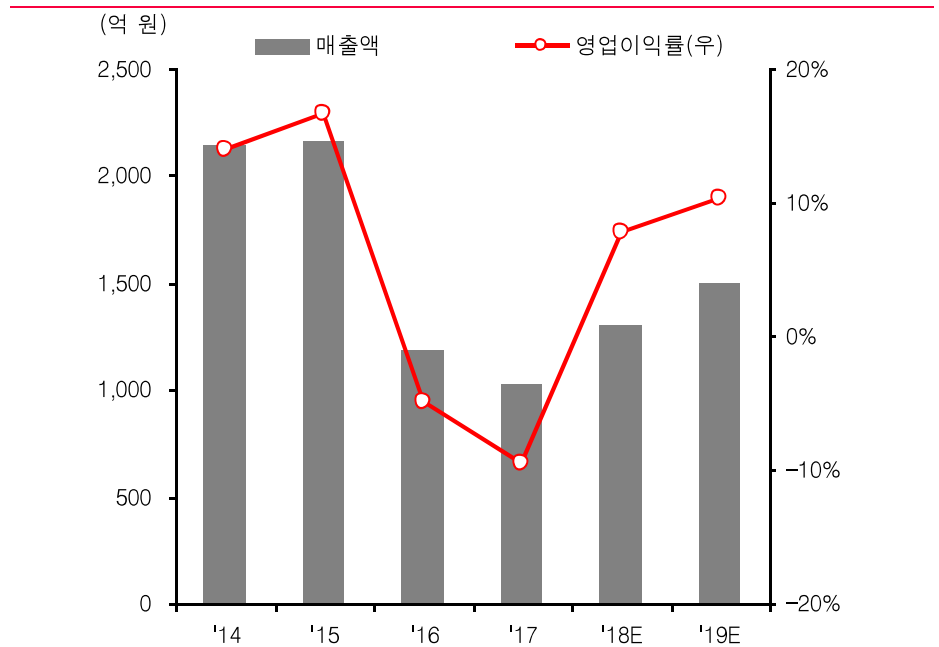
Price Trend



FY	매출액 (억원)	영업이익 (억원)	세전이익 (억원)	순이익 (억원)	지배주주순이익 (억원)	EPS (원)	PER (배)
2014	2,142	298	320	260	257	1,725	19.5
2015	2,167	361	376	292	288	1,854	18.5
2016	1,179	-58	-61	-4	-12	-	-
2017	1,021	-98	-389	-380	-369	-	-
2018E	1,300	100	110	88	86	553	25.1
2019E	1,500	155	165	132	130	836	16.6

자료: 코나아이, 하이투자증권

<그림 66>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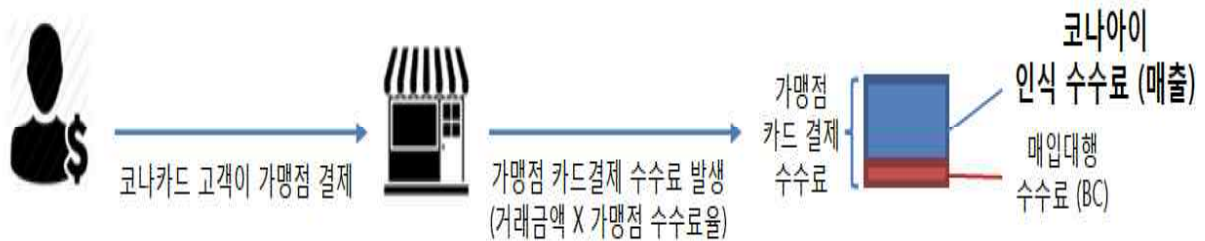
자료: 코나아이, 하이투자증권

<그림 67> 코나카드 사업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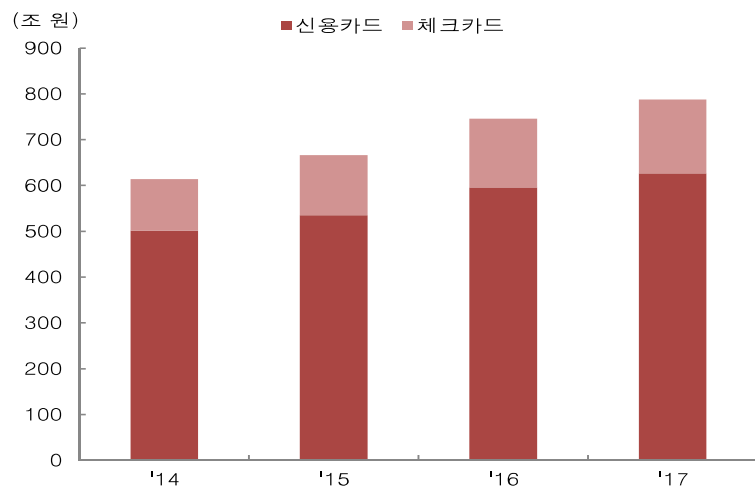
자료: 코나아이, 하이투자증권

<그림 68> 선불형카드 발행 사업 수익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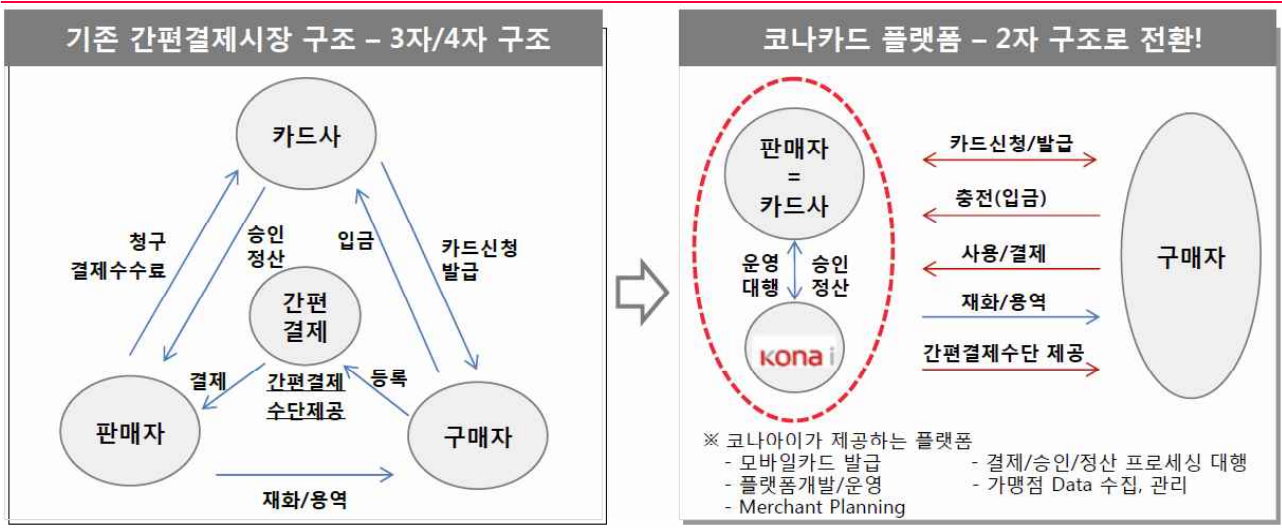
자료: 코나아이, 하이투자증권

<그림 69> 국내 카드결제 금액 규모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하이투자증권

<그림 70> 기존 간편결제 및 코나카드 플랫폼 차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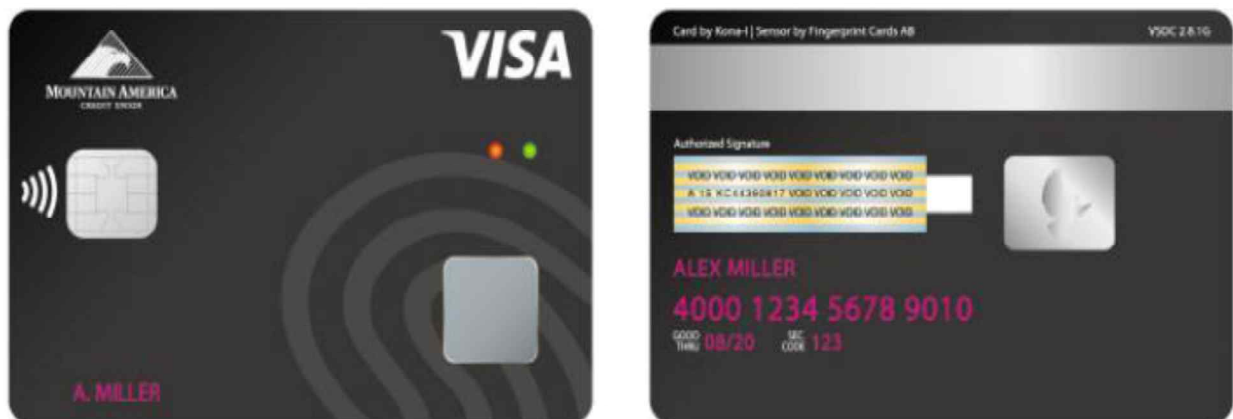
자료: 코나아이, 하이투자증권

<그림 71> 가맹점 플랫폼 제공 사업 수익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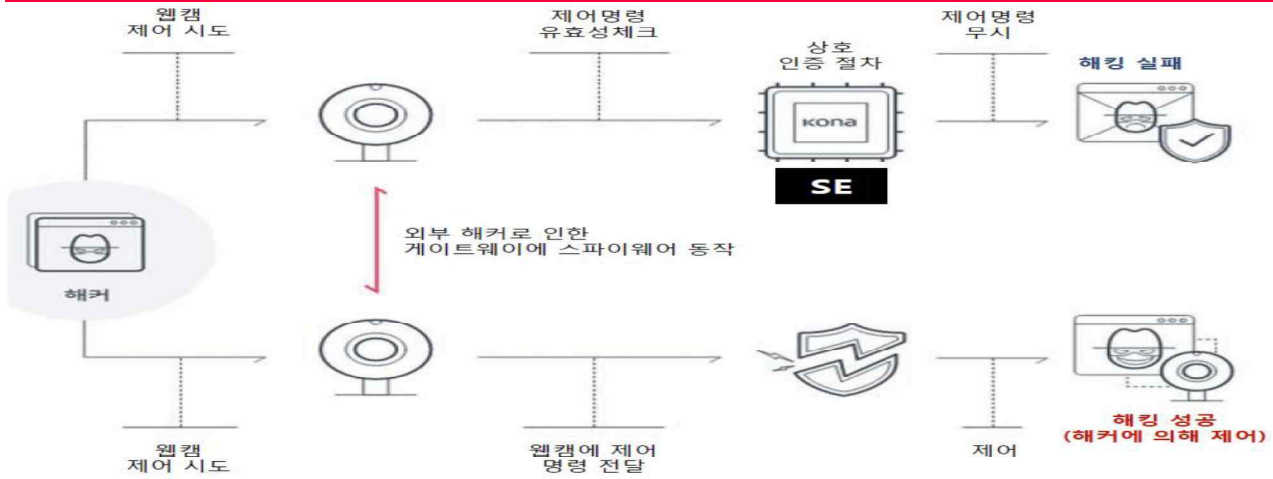
자료: 코나아이, 하이투자증권

<그림 72> Visa 지문카드파일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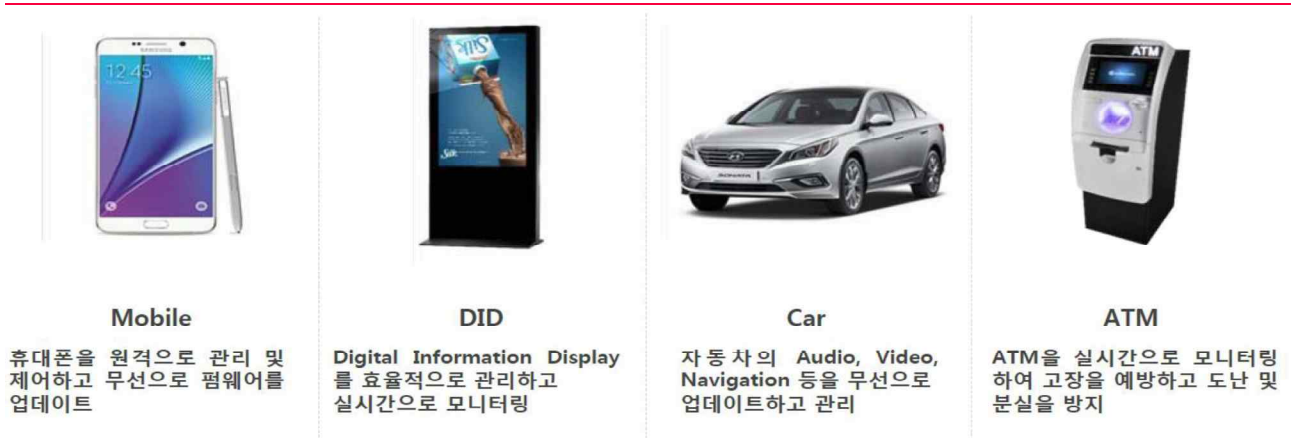
자료: 코나아이, 하이투자증권

<그림 73> SE 기반 IoT 플랫폼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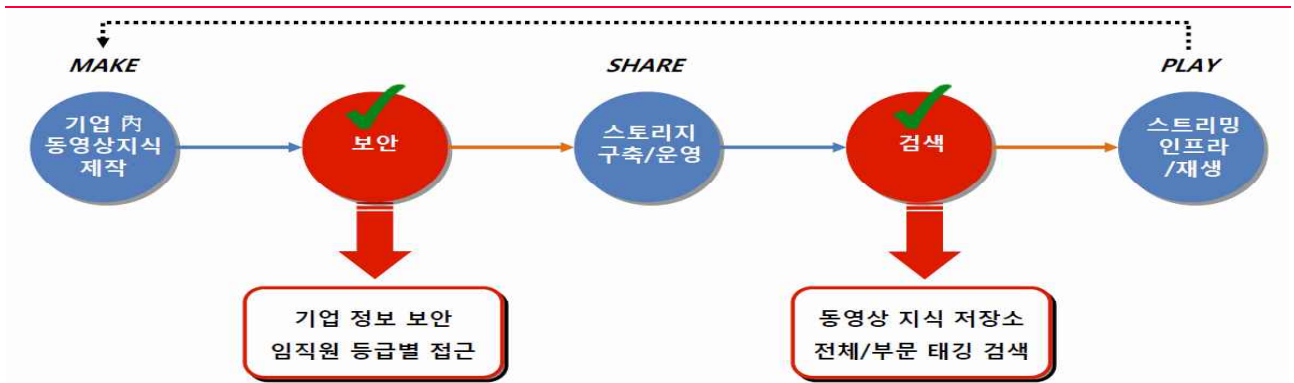
자료: 코나아이, 하이투자증권

<그림 74> IoT 관련 사업 확대



자료: 코나아이, 하이투자증권

<그림 75> 동영상 기반 지식공유 플랫폼 Veaver



자료: 코나아이, 하이투자증권

최근 2년간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추이(코나아이)



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원)	목표주가 대상시점	괴리율	
				평균주가대비	최고(최저)주가대비
2018-01-29	NR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이상헌\)](#)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Buy(매 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용 등급 공시 2018-03-31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의견 비율(%)	93.6%	6.4%	-